



(사)한국포장협회

제281차 이사회

회원 가입 승인 및 해외전시 파견 보고

(사)한국포장협회(회장 임경호) 제281차 이사회가 지난 7월 11일 협회 회의실에서 있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폐기물 재활용 업체인 (주)정우산업개발과 연포장 업체인 (주)삼원기업에 대한 회원 가입을 승인하는 등 회원 확대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튀르키예 포장전시회 한국관 참가 진행보고, 인도네시아, 중국 포장관련 전시회 파견 보고, 포장기술관리사 경과 및 시행계획 보고가 있었다.

인도네시아 식품 및 포장전시회는 3개사가 출품하고 협회는 회원사 홍보물과 샘플을 전시하여 상담 활동을 하고, 주변 포장 시장을 점검하여 회원사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11월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SWOP 전시회에는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옵션을 바탕으로 참관단을 구성하여 파견할 계획이다.

매년 2회 진행되는 포장인 포럼도 10월 25일 박형탁 교수의 ‘안전경영 전략과 대응방안’ 주제와 함께 추가 주제를 모색하기로 했다.

임경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들의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며 “협회가 다양한 사업을 통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회원사 및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협회 사업을 다양화하고 회원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 계획을 실천해 가고 있다.



▲ (사)한국포장협회 제281차 이사회가 협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사)한국포장협회**튀르키예 포장 전시회 설명회**

한국관 운영 관련 안내사항 전달

(사)한국포장협회(회장 임경호)는 지난 7월 11일 협회 회의실에서 튀르키예 이스탄불 포장 전시회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2023 튀르키예 이스탄불 포장 전시회(EURASIA PACK 2023)’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가 업체를 대상으로 한국관 운영과 관련한 자세한 안내사항이 전달됐다. EURASIA PACK 2023은 총 110,000㎡ 규모에 1,300개 기업이 참가하며, 한국관에는 (주)유한팩, 두산전자기기, (주)아이피씨, (주)립멘, (주)트루셀, (주)화인메카트로닉스, (주)대진화학, 동양잉크, 제이에셀(주), (주)캠피플 등 총 10개사(11부스·홍보부스 포함)가 참가한다.

한국포장협회 오선진 전무이사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참가 기업들의 수출지역 확대와 함께 포장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희망한다”면서 “협회는 성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포장협회는 7월 11일 협회 회의실에서 튀르키예 이스탄불 포장 전시회 설명회를 열었다.



한편 2023 튀르키예 이스탄불 포장 전시회는 오는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튀르키예 이스탄불 Tuyap 전시장(한국관 5홀)에서 열린다.

(사)한국포장협회

연포장분과위원회

기술 · 정보교류 등 다양한 활동, 최근 동향 등 논의

(사)한국포장협회 연포장분과위원회(위원장 김창순)가 지난달 6일 협회 회의실에서 분과회의를 진행했다. 분과 소속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의 업계 동향에 대한 정보 교류와 친환경, 소재 동향 등 기술 교류까지 다양하고 구체적인 의견을 나눴다.

연포장분과는 앞으로도 공동이익을 위한 노력, 기술 및 업계 현황 교류 등 다양한 활동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김창순 위원장은 “어려울수록 함께 노력하여 위기를 극복해 가는 것이 각사와 업계를 위한 일”이라며 “더 많은 회원사가 참가하여 자주 의견을 나누자”고 말했다.

연포장분과위원회는 격월로 진행되며 가끔 운동모임도 하고 있다.



▲ (사)한국포장협회 연포장분과위원회가 지난달 6일 협회 회의실에서 있었다.

SKC

5년간 친환경 소재 등 '최대 6조원' 투자

투자자 대상 사업설명회 열고 중장기 매출 목표 제시



▲ SK넥실리스 정음공장 전경

SKC가 2027년까지 2차전지·반도체·친환경 소재 사업에 최대 6조원을 투자해 매출 11조40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SKC는 지난달 4일 국내외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업 추진 계획과 중장기 매출 목표를 제시했다.

SKC는 과감한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을 통해 2025년 7조9000억원, 2027년 11조4000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동박·

실리콘 음극재 등 2차전지 소재와 글라스 기판 등 반도체 소재, 생분해플라스틱 등 친환경 소재 사업에 주력할 방침이다.

사업별로는 반도체 소재에 2조원, 2차전지 소재에 1조8000억원, 친환경 소재에 2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인수·합병(M&A)을 통한 신규 사업 진출도 적극 검토 중이다. M&A에는 1조~2조원 가량을 투자할 예정이다.

SKC는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이미 지난해 필름 사업 부문을 매각한 바 있다. 폴리우레탄 원료사업 자회사인 SK피유코어 매각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알미늄

계열사·임직원 '공동 참여형 환경 캠페인' 전개

롯데그룹 화학군, 사업장 인근 생태보호 활동 실시

롯데그룹 화학군(롯데알미늄·롯데케미칼·롯데정밀화학·롯데엠시스)은 지난 5월 31일부터 그룹사 최초로 계열사와 임직원이 공동 참여하는 자원순환 및 생태보호 캠페인 '2023 세상을 이롭게 워크'를 한 달간



2023 세상을 이롭게 위크

롯데그룹 화학군 자원순환 및 생태보호 캠페인



▲ 롯데 화학군 임직원들이 자원순환 및 생태보호 캠페인 '2023 세상을 이롭게 위크'를 한 달간 실시했다.

실시했다고 지난달 7일 밝혔다.

이번 환경 캠페인은 롯데케미칼의 플라스틱 재활용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LOOP'의 일환으로 화학군 4개사가 공동 진행하는 자원순환 활동과 각 사업장에서 개별로 실시하는 생태보호 활동 2가지로 기획됐다.

자원순환 활동 '자원을 새롭게'는 각 사의 서울사업장에 페트병 수거기를 설치하고 사용법을 안내해 임직원들 스스로 폐페트병과 캡을 분리 배출하는 활동으로 4개사가 릴레이 방식으로 수거기를 이어받아 진행됐다.

행사에는 임직원 427명이 참여해 페트병 2,229개를 수거했으며 수거한 자원은 자원순환 분야의 소셜벤처 기업인 코끼리공장에 기부했다. 생태보호 활동 '환경을 이롭게'는 임직원들이 직접 환경보호 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환경 이슈 해결에 동참하고자 마련됐다.

롯데케미칼은 기초소재와 첨단소재사업의 여수공장 인근 중흥부두에서 해안 정화 활동을, 롯데엠시시는 대산공장 인근 안면도 꽃지해수욕장에서 에코플로깅 활동을 실시했다. 롯데정밀화학은 울산사업장 인근 태화강 국가정원의 십리대숲에서 죽순보호 활동을, 롯데알미늄은 평택공장 인근 모곡근린공원에서 플로깅 활동을 실시했다. 롯데그룹 화학군은 이번 행사 외에도 올바른 분리 배출 문화 조성과 플라스틱 수거 거점 확대를 위해 인천지역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학교에 플라스틱 수거기를 설치했으며 안전한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소방관 문화 공연을 실시하는 등 그룹 차원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 중이다.

동원시스템즈

20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상장 계열사 3사, 경영 성과와 방향성 담아

동원그룹 상장 계열사 3사(동원시스템즈·동원산업·동원F&B)가 지난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성과와 방향성을 담은 '20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각각 발간했다고 지난달 3일 밝혔다.



▲ 동원그룹 상장 계열사 3사가 '20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각각 발간했다.

먼저 종합포장재기업을 넘어 첨단소재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동원시스템즈는 친환경 미래소재로 꼽히는 2차전지를 비롯해 친환경 포장재 분야 사업을 지속 확장하며 그린 비즈니스(green business)로의 전환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약 705억원을 투자해 충남 아산사업장 내 이차전지용 원통형 캔 생산을 위한 공장을 증설했으며, 같은 해 5월 약 800억원을 투자해 강원도 횡성군에 무균충전음료 공장을 신설했다. 무균충전음료는 일반 페트 음료에 비해 플라스틱 사용량이 약 20% 적다. 이외에도 저탄소 녹색기술 인증 및 GRS 국제재생 표준인증을 받은 친환경 포장재를 적극 생산하고 있다.

이어 동원산업은 지난해 지주사 합병 후 새롭게 출범한 사업 지주사로, ESG 경영을 적극 실행하고자 기존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를 그룹 차원의 ESG 경영위원회로 확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ESG 경영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응·탄소 배출 감축 ▲인재 관리 ▲윤리경영·공정정의 실현 등 3가지 핵심 아젠다를 선정했다.

특히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0으로 감축한다는 '2050 탄소중립'에 동참하며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대비

42%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울러 현대·기아차와 페어망을 자동차 부품으로 재활용하는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조업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집어장치(FAD)를 생분해가 가능한 바이오 소재로 변경하는 등 해양 플라스틱 감축을 위해 적극 활동하고 있다.

또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 경영을 위해 지난해 사외이사를 1명에서 5명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이사회 산하에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면서 이사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했다.

종합식품기업 동원F&B는 '인류 건강에 기여하는 글로벌 식품기업 실현'이라는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식품의 개발 단계부터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식품 포장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을 2021년 대비 15%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동원F&B는 지난해 동원샘물 페트병 경량화, 양반김 에코패키지 등을 통해 연간 약 1,388t의 플라스틱을 절감했다. 이는 30년령 소나무 약 35만 그루를 심는 환경보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원그룹 상장 3사는 모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국제 표준 가이드라인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를 기준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각 보고서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 기관의 제3자 검증을 거쳤다.



코오롱인더스트리-한국지질자원연구원

우주자원 탐사 위해 MOU

2032년 한국형 달착륙선에 필요한 소재와 부품 공급 목표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우주자원 탐사 사업에 나선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지난달 4일 서울 마곡에 위치한 코오롱 원앤온리(One&Only)타워에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원장 이평구)과 우주자원 및 지구광물 자원 탐사 개발 관련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사는 협약을 통해 극한 우주 환경에서 자원 탐사 및 추출에 필요한 신소재를 발굴 및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에서 2032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국형 달착륙선에 필요한 소재 개발에 힘을 보탬 계획이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차세대 소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아도메탈’로 불리는 내마모성과 내열성을 가진 비정질 합금을 달탐사 로봇의 외부코팅 소재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 극한 온도 변화 및 진공 상태 등 다양한 검증과 함께 국내외 우주산업 네트워크 진입을 통한 퍼스트 무버(First-Mover)로서 입지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영범 코오롱인더스트리 대표이사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큰 시너지가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주자원 개발로 검증받은 소재 기술력을 추후 다양한 분야의 어플리케이션으로 확대



▲ 김영범 코오롱인더스트리 대표이사(왼쪽)와 이평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오른쪽)이 업무협약을 체결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회원사의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리며 끊임없는 발전과 성장이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사)한국포장협회 회원사 임직원 일동

[주]한두패키지

2000년 8월 1일 창립 23주년

일진알텍(주)

2007년 8월 1일 창립 16주년

두산전자기기

1986년 8월 11일 창립 37주년

일진팩

2009년 8월 11일 창립 14주년

[주]씨오텍

2001년 8월 15일 창립 22주년

[주]태방파텍

1998년 8월 17일 창립 25주년

[주]유상

1976년 8월 20일 창립 47주년

삼흥산업(주)

1982년 8월 20일 창립 41주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평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우주 자원 탐사 기술 개발을 위한 첫 걸음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 주도 우주개발은 물론 우주자원개발에도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우수한 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국포장기술인협의회

7월 제68차 기산회 산행

7월 1일 안산 대부도 구봉산

한국포장기술인협의회 기산회(회장 이은호)가 2023년 제4차(총 68차) 산행을 실시했다.

한국포장기술인협의회 기산회는 지난달 1일 오전 경기 안산 대부도 구봉산에서 7월 등반대회를 열었다.

참가회원들은 등산을 통해 건강과 화합을 다졌으며, 회원 간 정보교류 및 친목도모의 시간을 가졌다. 회원들을 위한 이날 점심식사는 안산시 단원구에 소재한 낙지촌에 마련됐다.



▲ 한국포장기술인협회 기산회가 지난달 1일 2023년 제4차(총68차) 산행을 실시했다.

전현수 한국포장기술인협회 회장은 “회원님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한 이번 기산회 모임을 통해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이 되셨길 바란다”면서 “본격적인 더위에 대비해 늘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길 바라며, 회원님들의 건강한 여름 나기를 기원드린다”고 전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패키징기술센터

‘2024 대한민국 패키징대전’ 계획 공지

기업 · 공로부문 접수, 내년 2월 23일까지

2024년도 ‘대한민국 패키징 대전’ 공모 일정이 공지됐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패키징기술센터(센터장 심진기)는 지난 6월 30일 ‘2024 대한민국 패키징 대전’(KOREA STAR AWARDS 2024)에 관한 기본 계획을 안내했다.

기업 · 공로부문 접수기간은 2023년 12월 4일부터 2024년 2월 23일(18시00분)까지이며, 학생부문은 2023년 12월 4일부터 2024년 2월 29일(18시00분)까지다. 결과 발표는 각각 4월 1일(기업, 학생부문)과 4월 8일(공로부문)에 이뤄지며, 시상식은 2024년 4월 23일 경기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열릴 예정이다. 기업부문 신청자격은 완제품, 원부자재 재료, 디자인 등의 분야에서 신기술 개발 또는 개선으로 수출신장, 수

2024 대한민국 패키징 대전

KOREA STAR AWARDS 2024

공모일정

접수기간 [기업, 공로부문]
2023년 12월 4일(월) - 2024년 02월 23일(금) 18:00
[학생부문]
2023년 12월 4일(월) - 2024년 02월 29일(목) 18:00

결과발표 [기업, 학생부문] 2024년 04월 01일(월)
[공로부문] 2024년 04월 08일(월)

시 상 식 2024년 04월 23일(목) / KINTEX, 경기도

신청자격

기업부문 패키징 관행, 패키징 장비의 제조, 패키징 디자인 등의 분야에서 신기술 개발 또는 혁신으로 수출산업, 제품·수익 증대 및 알뜰한 소비를 통해 패키징 기술의 발전에 기여한 기업의 패키징 소재 또는 제품, 패키징 디자인으로 생산 제품의 판매 증대를 도모

학생부문 한국 대학(원)에 재학 또는 휴학,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1인 또는 단체(3인 이하)로 또는 단체(3인 이상)로 패키징과 관련된 혁신으로 제품의 개발 가능한 학생, 학부생, 대학원생, 대학원생, 대학원생, 대학원생 등이 이루어진 패키징 제품 또는 디자인을 출품한 자

공로부문 패키징 관행, 패키징 장비의 제조, 패키징 디자인 등의 분야에서 신기술 개발 또는 혁신으로 수출산업, 제품·수익 증대 및 알뜰한 소비를 통해 패키징 기술의 발전에 기여한 기업의 패키징 소재 또는 제품, 패키징 디자인으로 생산 제품의 판매 증대를 도모

패키징 관련 홍보, 제품, 교육 등을 통해 패키징 산업 지변 확대 및 발전에 기여한 기업 또는 개인

신청방법 및 특전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http://www.kopack.re.kr)
-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제출서류 및 접수 방법 등 상세한 접수 신청

특 전 해외 패키징 포상제도 출품 자격 부여 (ASIA STAR AWARDS 2024, WORLD STAR AWARDS 2025) 수상료 및 전시회 참가권

문의 Tel. 032-624-4778, 4759
e-mail. kopack114@kitech.re.kr

포상종류

구분	대상	포상종류	수량 (수상료)
기업	2024년 1차 수상	국무총리상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5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상	5
	2024년 2차 수상	부총리상	2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상	2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상	8
2024년 3차 수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1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상	2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상	2	
2024년 4차 수상	부총리상	2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상	2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상	8	
공로	우수공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2
	우수공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2

* 수상 수량은 관부처 및 외부 후원 기관에 따라, 패키징 기술 분야 우수자에게 집중할 수 있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패키징기술센터는 '2024 대한민국 패키징 대전'에 관한 기본 계획을 안내했다.

패키징 대전은 국내 패키징 산업의 기술개발 및 패키징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관련 종사자의 사기 진작 및 기술 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 증대 및 발명특허 획득 등 패키징 기술력 발전에 기여한 기업의 패키징 소재 및 제품 디자인으로 해당제품 관련 분야에 응모할 수 있다.

학생부문은 전국 대학(원)에 재학 또는 휴학,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1인 또는 단체(팀 3인 이내)에 계 자격이 주어지며 공로부문에는 패키징 분야 공적기간 10년 이상 종사자 또는 패키징 관련 홍보, 저술, 교육 발전에 기여한 기업 또는 개인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www.kopack.re.kr)로 이뤄지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또는 전화(Tel. 032-624-4778, 4759)나 이메일(kopack114@kitech.re.kr) 문의를 통해 가능하다. 수상 특전으로는 국무총리상 등 상패 및 포상이 수여되며, 해외 패키징 포상제도 출품 자격(ASIA STAR AWARDS 2024, WORLD STAR AWARDS 2025)부여와 함께 수상홍보 및 전시회 참가권도 함께 이뤄진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패키징기술센터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패

환경부

“기업 투자 · 경쟁력 방해하는 환경규제 과감히 혁신”

한화진 장관 ‘탄소감축 시대, 정부의 환경정책 방향’ 주제로 강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13일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2023 대한상의 제주 포럼’에서 ‘탄소감축 시대, 정부의 환경정책 방향’을 주제로 정책강연을 했다.

이날 강연에서 한화진 장관은 기후변화 등의 환경 의제가 ▲탄소 무역장벽 ▲플라스틱 · 배터리 재생 원료 의무 사용 ▲환경 · 사회 · 투명 경영(ESG) 요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탄소 신

시장을 선점, 우리 경제가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자고 밝혔다.

아울러 한 장관은 우리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고 경쟁력을 갉아먹는 킬러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환경부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기업 투자를 제약하거나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선별해 속도감 있게 혁신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그간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던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중점 또는 간이 평가하도록 개선한다. 이미 확보됐거나 누적된 평가정보 등을 사전에 제공하여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특히 국제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합리화한다. 현재 0.1톤 이상 화학물질 제조·수입 시 등록해야 하는 기준을 1톤 이상 시 등록(1톤 미만은 신고)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아울러 획일적으로 관리하던 유독물질은 유해성, 취급량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관리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한다. 이 모든 개정안은 민·산·관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이외에 한 장관은 이번 강연에서 올해 6월 우리 기업이 8조 6000억원 규모의 그린 수소 사업권을 오만으로 부터 수주하는 성과를 소개하고, 올해 목표인 20조원 수주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직접 녹색 수출 영업사원 1호로서 세일즈 외교에 매진할 것을 강조했다.

롯데이오네스화학

친환경 바이오 초산비닐 시장 공략

“친환경 원료 수요 부응, 탄소 배출 저감 선도”

롯데이오네스화학이 친환경 바이오 초산비닐 시장에 진출한다고 지난달 10일 밝혔다.

초산비닐은 식품용 포장재, 무독성 접착제 및 도료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을 비롯해 태양 전지 모듈 하우징과 디스플레이용 편광 필름과 같은 친환경 첨단 소재 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초산비닐에 대한 수요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바이오 초산비닐은 원재료 중 바이오 원료를 20% 이상 사용해 생산한 초산비닐로, 유럽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 친화경영을 실천해 온 롯데이오네스화학은 2022년 초부터 바이오 초산비닐 생산을 준비해 왔으며, 올해 4월 ISCC(International Sustainability and Carbon Certification) Plus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ISCC는 유럽연합의 재생 에너지 지침에 부합하는 제품에 부여되는 인증으로 투명한 심사 기준과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친환경 인증 분야에서 신뢰도가 높다.

롯데이오네스화학은 제품 생산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총량, 즉 제품 탄소 발자국(PCF) 평가 역시 진행하는 한편, 3분기 초도물량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간 일반 초산비닐을 수출해 온 유럽 내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 울산에 위치한 롯데이네오스화학 초산비닐2공장 전경

점검하는 등 막바지 총력을 다하고 있다.

롯데이네오스화학 관계자는 “탄소 배출 저감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의 친환경 원료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급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세계 3위의 초산비닐 생산 능력을 갖춘 롯데이네오스화학은 앞으로 바이오 초산비닐 시장 확대를 통해 친환경 원료 수요에 부응하고, 탄소 배출 저감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J대한통운

영세 소상공인에 택배비·포장재 등 지원

소상공인연합회와 30개 업체에 자체 개발한 친환경 포장재 전달

한국제지연합회가 6월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회 종이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CJ대한통운이 소상공인연합회, 사랑의열매와 친환경 물류 지원사업 ‘그린딜리버리플러스’를 진행한다고 지난 달 5일 밝혔다.



▲ 소상공인들이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열린 물류 역량강화 교육에 참석해 강연을 듣고 있다.

그린딜리버리플러스는 평소 접하기 어려운 물류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택배비·포장재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상생 프로그램이다.

대상은 택배를 통한 상품 판매가 주 매출원인 영세 소상공인으로 지난 5월 소상공인연합회와 심사를 통해 30개 업체를 선정했다. CJ대한통운은 서울 중로구 본사에서 선정된 업체를 초청해 친환경 물류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온라인 유통 구조의 이해, 최신 물류 동향, 친환경 소비트렌드, 패키징 및 재활용 관련 법적 규제, 물류비 절감 컨설팅 등으로 이뤄졌다.

CJ대한통운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상공인의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택배비와 친환경 포장재를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 포장재는 모두 CJ대한통운이 직접 개발한 것으로 포장 테이프 사용량을 50% 절감할 수 있는 원터치 박스와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로 만든 완충재 테이프 등이다.

김희준 CJ대한통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담당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친환경 물류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건강한 생태계 구현을 위해 소상공인과 상생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J대한통운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에 기여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플라스틱 화장품 용기 및 호텔에서 배출되는 투명 페트병 등의 재활용을 위한 순환물류, 물류센터 폐기물 재활용 등 사업 밀착형 친환경 경영에도 앞장서고 있다.

롯데마트

종이 포장재 사용한 친환경 소고기 출시

플라스틱 용기 대신 분리배출 쉬워

롯데마트는 종이 포장재를 사용한 ‘척아이롤, 부채살, 살치살(400g/냉장/미국산)’을 롯데마트 행당역점을 포함한 11개점에서 출시한다고 지난달 6일 밝

혔다. 롯데마트는 친환경 경영 실천 및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감소를 위해 이번 상품을 기획했다.

해당 상품은 일반적인 플라스틱 용기 대신 종이 패키지로 ‘페이퍼 보드’를 사용했다.

포장재 상단에 간편하게 분리할 수 있는 ‘에코탭’을 적용해 손쉽게 분리배출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미국산 소고기 외에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인증을 받은 종이 트레이를 활용해 제작한 ‘호주산 소고기 3종(안창·토시·홍두깨살)’도 7월 출시해 판매 중이다.

FSC란 국제산림관리협회가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국제 인증제도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종이와 제품에 부여되는 제도다.

롯데마트 축산팀 김나영 MD는 “고객들과 함께 친환경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플라스틱 포장재 대신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일상 속 폐기물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상품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롯데마트 행당역점에서 모델들이 페이퍼보드로 제작된 소고기 상품을 홍보하고 있다.

하이네켄코리아

친환경 그린 패키징 프로젝트 실시

2025년까지 전 제품 에코 패키지 전환

하이네켄이 2025년까지 판매하는 제품의 '친환경 그린 패키징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지난달 5일 밝혔다.

2020년 에버그린 전략을 발표한 하이네켄 인터내셔널은 '더 나은 세상을 양조한다(Brew A Better World)'라는 슬로건 아래 자연친화적 방식으로 원료를 생산, 양조, 포장, 이송해 전체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0% 절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이네켄을 양조 및 판매하고 있는 전세계 190여개국 중 전체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10개 국가(멕시코, 나이지리아, 베트남 등)에서 먼저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생산 및 양조 과정에서 탄소배출을 18%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이네켄코리아는 본사 목표보다 더 단축해 2025년

까지 소비자에게 닿는 제품의 포장재를 친환경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미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는 하이네켄 0.0은 배송 박스를 FSC 인증을 받은 소재로 구성했으며 올해 출시하는 전 제품의 포장재에 FSC 인증 소재를 적용해 확대할 예정이다.

김준형 하이네켄코리아 지속가능경영 팀장은 "하이네켄 인터내셔널의 이번 전략이 전 지구적인 이슈인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에서도 본사의 전략에 발맞춰 친환경 패키지로 전환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맥도날드

모든 포장재 재활용 소재로 전환

100% 동물복지란 전환 준비 중

한국맥도날드가 2025년까지 모든 포장재를 재활용, 재사용이 가능한 소재로 바꾼다.

한국맥도날드 김기원 대표이사는 지난달 5일 서울더플라자 호텔에서 창립 35주년 기념 기자간



▲ 하이네켄이 2025년까지 판매하는 제품의 '친환경 그린 패키징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 한국맥도날드가 2025년까지 모든 포장재를 재활용, 재사용이 가능한 소재로 바꾼다.

담회를 열고 향후 경영전략을 소개했다.

김 대표는 “고객이 있기에 맥도날드의 35년이 존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의 35년도 고객 곁에서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친구 같은 브랜드가 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투자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맥도날드는 2025년까지 모든 포장재를 재활용, 재사용이 가능한 소재로 전환하고 ‘100% 동물복지란 전환’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친환경 매장의 설립부터 커피박,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등 선순환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며 친환경 경영을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농가 상생 펀드를 조성해 농가를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고품질의 국내산 식재료를 고객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한국맥도날드는 환아와 가족들을 위한 제2의 집 ‘로날드 맥도날드 하우스’가 수도권 내에도 설립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아울러 2030년까지 매장을 총 500개로 확대하고 연내 총 8개의 대규모 신규 Drive Thru 매장과 12개 매장에 대한 리뉴얼 계획도 실시할 계획이다.

에쓰오일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로 친환경제품

탄소집약도 낮은 친환경제품 생산

에쓰오일이 저탄소 친환경 신에너지 사업을 본격화한다.

에쓰오일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정제 공

정에 투입해 저탄소 친환경 제품으로 생산하는 실증 특례 사업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고 지난달 6일 밝혔다.

에쓰오일은 국내외에서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제조한 열분해유를 온산공장 기존 정유 화학 공정에서 원유와 함께 처리해 휘발유, 등유, 경유, 나프타, 폴리프로필렌 등 정유 화학제품으로 생산하는 실증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에쓰오일은 원료 투입 초기 테스트를 통해 안정화 과정을 거쳐 신에너지 사업 추진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향후 2년간 실증 동안 최대 1만톤의 열분해유를 기존 정유 화학 공정에 투입해 자원순환형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에쓰오일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원유의 혼합 비율을 조정해가면서 전체 제품 수율 변화와 공정 영향성을 평가하며 친환경 제품 생산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주로 소각·매립되던 폐플라스틱을 재자원화하므로 기존 원유 대체와 자원순환 효과가 뛰어나고, 이산화탄소 및 폐기물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



▲ 안와르 알 히즈아지 에쓰오일 CEO

로 기대된다.

에쓰오일은 시운전을 통해 불순물이 많이 포함된 열분해유를 기존 설비에서 성공적으로 제품화한 이후 지속가능성 국제 인증(ISCC PLUS)을 신청하여 탄소배출 감축 성과를 구체화하고 저탄소, 순환 경제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페플라스틱은 85% 이상 재자원화가 가능하다. 국내 석유사업법상으로는 석유와 석유제품만을 정제원료로 사용해야 해 페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정제공정에 투입할 수 없다.

이에 에쓰오일은 지난 3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특례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에쓰오일은 “저탄소, 순환형 신에너지 관련 사업을 추진해 ‘최고의 경쟁력과 창의성을 갖춘 친환경 에너지 화학 기업’이라는 회사 비전을 실현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과 친환경 트렌드에 발맞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케미칼-오뚜기

소스용기에 순환재활용 페트 100%

식품 용기 적용은 국내 최초

SK케미칼은 오뚜기의 돈가스·스테이크 소스 용기에 자사의 순환 재활용 페트(CR-PET)를 100% 적용했다고 지난달 5일 밝혔다.

식품업계에서 순환 재활용(화학적 재활용) 소재를 100% 적용해 용기를 개발, 상업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SK케미칼은 전했다.

순환 재활용은 페플라스틱을 분자 단위로 분해해 다시 원료로 만들어 사용하는 SK케미칼의 화학적 재활용 기술로 페플라스틱을 세척해 다시 쓰거나



▲ 스카이펫 CR이 적용된 오뚜기 육류 소스

작은 크기(플레이크 형태)로 잘라 사용하는 ‘기계적 재활용’ 방식에 비해 고품질의 물성과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번에 리뉴얼된 오뚜기의 육류용 소스 용기에는 ‘스카이펫(SKYPET) CR’을 100% 사용했다. SK케미칼과 오뚜기의 식품 포장재 자회사 풍림 P&P가 지난해 업무협약(MOU)을 맺고 공동 개발했다.

소스 용기에 스카이펫 CR을 적용하면서 석유 기반의 기존 페트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요구에 부응할 수 있게 됐다.

유럽 등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수출에도 유리해질 전망이다.

오뚜기는 다른 제품군 용기에도 스카이펫 CR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SK케미칼은 제주삼다수의 리본(RE:Born)에 스카이펫 CR을 적용하는 등 순환 재활용 소재의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한편 SK케미칼은 지난 3월 중국 슈에(Shuye)의 순환 재활용 원료·페트 사업 관련 자산을 인수, SK 산터우법인을 설립해 안정적으로 재활용 플라스틱의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